선진경제실 미주팀

(중남미)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12.24

1. 확산 동향

□ 중남미지역 코로나19 특이 동향

- 브라질, 9월 이래 처음으로 일일 사망자 1,000명 상회(1,092명, 12.17)
- 콜롬비아, 누적 확진자 150만 명 돌파(12.20), 사망자 4만 명 돌파(12.18) 및 일일 신규 확진자 기록(14,233명) 경신(12.23)
- 페루, 누적 확진자 100만 명 돌파(12.22)

□ 12월 24일 현재 중남미지역 확진자는 12월 17일 대비 4.2% 증가한 1,448만 9,836명, 사망자는 2.8% 증가한 490,484명 기록

- 12월 24일 기준 확진자의 세계 비중(18.9%) 및 사망자 비중(28.4%)은 12월 17일보다 감소

표 1. 중남미 국별 코로나19 대유행 현황(2020.12.24, am 11:22)

국가 ¹⁾	확진자(명)	사망자(명)	최초발생일	특징 ²⁾
브라질	7,365,517	189,220	2020.02.26	- 감소세
멕시코	1,338,426	119,495	2020.02.28	- 감소세
에콰도르	207,084	13,962	2020.02.29	- 감소세
도미니카(공)	162,496	2,401	2020.03.01	- 증가세
아르헨티나	1,563,865	42,314	2020.03.03	- 증가세
칠레	590,914	16,228	2020.03.03	- 증가세
코스타리카	161,942	2,065	2020.03.06	- 감소세
콜롬비아	1,530,593	40,931	2020.03.06	- 증가세
페루	1,000,153	37,218	2020.03.06	- 감소세
파라과이	102,372	2,138	2020.03.07	- 증가세
파나마	217,202	3,632	2020.03.09	- 증가세
볼리비아	151,059	9,052	2020.03.10	- 증가세
자메이카	12,423	290	2020.03.10	- 증가세
온두라스	117,588	3,046	2020.03.11	- 감소세
쿠바	10,500	139	2020.03.11	- 증가세
가이아나	6,258	162	2020.03.11	- 증가세
SVG	108	0	2020.03.11	
T&T	7,071	125	2020.03.12	- 감소세
베네수엘라	110,828	997	2020.03.13	- 증가세

국가 ¹⁾	확진자(명)	사망자(명)	최초발생일	특징 ²⁾
우루과이	14,710	128	2020.03.13	- 증가세
앤티가 바부다	154	5	2020.03.13	
세인트루시아	305	5	2020.03.13	
과테말라	134,256	4,739	2020.03.13	- 현상 유지
수리남	5,734	118	2020.03.13	
바하마	7,788	169	2020.03.15	- 감소세
바베이도스	329	7	2020.03.17	
엘살바도르	43,772	1,274	2020.03.18	- 증가세
니카라과	5,991	164	2020.03.18	- 주간 1회(화) 공식통계 발표 - 감소세
아이티	9,805	234	2020.03.19	- 현상 유지
도미니카	88	0	2020.03.22	
그레나다	105	0	2020.03.22	
벨리즈	10,370	226	2020.03.22	- 감소세
SKN	30	0	2020.03.24	
33개국 총계	14,889,836	490,484		

주: 1) 확진자 발생 시기 순, 2) 최근 1주간 평균 확진자 추세.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s Coronavirus Resource Center.

2. 경제적 영향

□ 쿠바

○ 쿠바 2020년 성장률 -11% 전망(12.17)¹⁾

-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iaz-Canel)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12.16)로 2020년 쿠바경제가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의 전망치(-8.5%, 12.16일)보다도 낮은 -11%, 2021년에는 6%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집권 말기에 더욱 강화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제재조치로 해외송금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담당해 온 Western Union 쿠바 전체 지점의 폐쇄(11.2)를 야기
- 바이든(Joe Biden) 정부에서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당선자는 체제 전환보다는 쿠바정부에 대한 외부세력의 목소리와 파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개입(re-engagement) 정책으로의 변화를 기대

1) The Inter-American Dialogue's Latin America Advisor(2020.11.18), "Cuba's Economy Shrank 11% This Year: Diaz-Canel," p. 3.

□ 중남미

- 2021년 채권 발행 수요 급증 전망(12.17)²⁾
 - JPMorgan Chase & Co.에 이어 중남미지역 2위 채권발행대행사인 Citigroup은 2021년 중남미 정부 및 기업들의 채권 발행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Citigroup은 재정확보와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국가 및 기업들(멕시코와 페루 등 투자등급 유지 경우)의 사정을 감안할 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 수준(1,500억 달러) 이상의 채권발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채권 발행 수요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금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3월부터 제고되기 시작하여 2019년보다 20% 증가한 1,400억 달러를 기록

3. 지역/정부의 대응

□ 방역 대책

- 중남미
 - 미주개발은행(IDB), 코로나19 백신 도입 자금 지원(12.16)³⁾
 - IDB는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유통을 위한 10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
 - 이 자금은 2020년에 기집행한 자금과 2021년 코로나19 진단, 추적, 그리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목적으로 지원 약속한 자금 12억 달러와는 별개
 - 신규 자금은 범미주보건기구(PAHO)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WHO의 COVAX Facility를 포함한 공동 백신정책 지원에 활용 예정
 - 주요국 백신 정책 동향
 - 콜롬비아: Pfizer 및 AstraZeneca 백신(각 1,000만 도즈) 선구매 및 2021년 2월 Pfizer/BioNTec 백신(170만 도즈) 접종 개시 계획 발표(12.21)⁴⁾

2) América Economía(2020.12.23), "Venta de deuda en América Latina alcanzaría récord en 2021,"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검색일: 2020.12.24).

3) IDB(2020.12.16), "IDB Mobilizes \$1 Billion for COVID-19 Vaccine Financ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www.iadb.org/en/news/idb-mobilizes-1-billion-covid-19-vaccine-financing-latin-america-and-caribbean>(검색일: 2020.12.18).

4) Reuters(2020.12.22), "Colombia to receive 1.7 million doses of Pfizer/BioNTech vaccine in February,"

- * 우선 접종 대상은 보건의료 종사자 및 80세 이상 고령자, 차 순위는 60세~79세 인구 및 만성질환자, 마지막으로 군인, 교사 등이 접종 대상 (백신 효과성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16세 이하 및 임신부는 접종 제외)
- * 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2,000만 도즈 추가 확보
- * 국가백신정책에 따라 무료로 접종하지만, 사적인 백신 구매도 허용할 계획
- 멕시코: Pfizer/BioNTec 백신(3,440만 도즈) 접종 12월 넷째 주 개시 계획
- 칠레(공중보건청, ISP): Pfizer/BioNTec 백신(1,010만 도즈 선구매, 12.1일) 긴급사용승인 및 크리스마스 전후 1차 분량(3만 도즈) 공급 계획(12.17)⁵⁾
 - * 2021년 3월까지 약 500만 명(보건의료 종사자, 교도관, 수형자, 군인, 노령자)을 접종하고, 상반기 이내에 인구의 80%까지 접종 완료 계획
 - * AstraZeneca 백신1,440만 도즈를 확보(400만 도즈 선구매, 11.19일,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 생산품, 2021년 하반기 공급)
 - * 임상시험 중인 Sinovac 백신 1,010만 도즈 선구매(2021년 1/4분기 공급) 및 3년간 6,000만 도즈 공급 협상 중
 - * COVAX Facility를 통한 765만 도즈 백신 선구매(9.18일)
- 에콰도르: Pfizer/BioNTec 백신 긴급사용승인(12.16) 및 2021년 1월 중 1차 분량(5만 도즈) 공급 계획⁶⁾
 - * 민간의료부문과 공동(구매, 유통, 접종)으로 다양한 백신(7개 업체 2억 도즈 구매 예정)을 확보하여 2021년 3월~9월 사이에 9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 계획
 - * 일반시민 대상 접종은 3월에 개시하고, 1월 중에는 Pfizer/BioNTec 백신 1차분으로 고령자 및 보건의료 종사자를 우선 접종 예정
 - * 농촌지역 보건소를 포함하여 전국 400개 백신 유통시설을 마련하고, 약국, 대학, 보건설비를 갖춘 기업 등 10,000여 곳에서 접종을 실시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colombia-vaccine-idUSKBN28V260>(검색일: 2020.12.22).

5) Reuters(2020.12.17), "Chilean health regulator approves Pfizer/BioNTech vaccine for emergency use,"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chile-vaccine/chilean-health-regulator-approves-pfizer-biontech-vaccine-for-emergency-use-idUSL1N2IW1M1>(검색일: 2020.12.22).

6) Reuters(2020.12.17), "Ecuador prepares for COVID-19 vaccination campaign with private sector,"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vaccine-ecuador/ecuador-prepares-for-covid-19-vaccination-campaign-with-private-sector-idUSKBN28Q200>(검색일: 2020.12.22).

- 영국 여행규제 강화(12.21)⁷⁾
 - 12월 18일 감염률이 매우 높은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발표 직후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영국과의 항공운항 중단을 포함한 여행 규제를 강화
 - 아르헨티나는 21일부터 입국자(승무원 포함)에게 7일간 격리(PCR 진단 결과 및 COVID 보험증서 제출)를, 칠레는 22일부터 2주간 최근 14일 이내 영국을 방문한 비거주 외국인의 입국 불허를 발표(12.20)
 - 엘살바도르는 최근 30일 간 영국 및 남아공을 방문한 여행자의 입국을,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는 영국과의 항공운항을 금지
- 우루과이
 - 상업용 외 교통수단의 국경통과 잠정 폐쇄(12.16)⁸⁾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조치로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비상업 운송수단의 국경통과는 물론, 시민들의 주말 및 휴일 모임을 제한
- 브라질
 - 백신정책 혼란 지속(12.16)⁹⁾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021년 2월말~3월에 개시될 것이라는 에두아르두 파주엘루(Eduardo Pazuello) 복지부 장관 발표와 달리 웰링턴 디아스(Wellington Diaz) 피아이우(Piaui)주 주지사는 파주엘루 장관이 중국 백신에 대한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비판적 언사와는 달리 연방정부가 Sinovac 백신 4,600만 도스를 구매하여 2021년 1월 25일 공급받을 것이라 발표했다고 주장
 - 실제로 파주엘루 장관은 12월 16일 백신 개발업체들이 12월 중으로 식의약품감시국(ANVISA)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경우 2021년 2~3월에 “COVID-19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 Sinovac 백신을 생산할 상파울루 소재 연구소(Butantan Institute)는 12월 23일에 ANVISA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임.

7) América Economía(2020.12.21), “América Latina cierra sus fronteras con el Reino Unido para evitar el ingreso de nueva cepa de COVID-19,” <https://www.americaeconomia.com/politica-sociedad/politica/> (검색일: 2020.12.22).

8) Reuters(2020.12.17), “Uruguay to close its borders over holidays due to COVID-19,”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uruguay-idUSL1N2IX0OF>(검색일: 2020.12.18).

9)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20.12.17), “Brazil's vaccination campaign will be slow and limited,”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8281>(검색일: 2020.12.18).

- 또한 2021년 2월 중에 Pfizer/BioNTech 백신 200만 도즈와 이미 선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AstraZeneca 백신(Fiocruz Foundation 생산 예정)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발표

□ 재정 및 금융정책

○ 멕시코

- 2021년 최저임금 15% 인상(12.16)¹⁰⁾

- 최저임금위원회(CONASAMI)는 일일 최저임금을 123.22페소에서 141.7페소(7.15달러)로 인상 결정

* 더불어 미국 접경 북부공업지대 최저임금은 185.56페소에서 213.39페소로 인상

- 최저임금 인상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우선 정책인데, 2018년(16%)과 2019년(20%)에도 대규모로 인상

○ 아르헨티나

- 부자 과세법 발효(12.18)¹¹⁾

-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긴급하게 부호들에게 과세하는 법안(Ley 27.605)을 공포(행정명령 1024/2020)

- 국내 거주자 및 해외 거주 자국민(12,000여 명)이 소유한 자산(국내 및 국외 보유 포함)이 2억 페소를 초과할 경우 2~3.5% 세율(해외자산 과세율 3~5.25%)을 부과

- 관련 세입은 의료장비 구매 및 제조(20%), 중소기업 보조금(20%), Progresar(교육지원) 프로그램(20%), 도시통합기금(FISU, 15%), 에너지부 프로그램(천연가스 탐사·개발·생산, 25%)에 활용

○ 칠레

- 민간연기금 2차 인출 78억 6,100만 달러 기록(12.22)¹²⁾

- 연금감독원(SP)은 연금 2차 부분 인출법 시행 13일 만인 12월 22일 기준으로 가입자의 86.4%가 78억 6,100만 달러를 인출

10) Reuters(2020.12.17), "UPDATE 2-Mexico to raise workers' daily minimum wage by 15% in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mexico-economy-wages/update-2-mexico-to-raise-workers-daily-minimum-wage-by-15-in-2021-idUSL1N2IX053>(검색일: 2020.12.18).

11) América Economía(2020.12.18), "Entró en vigencia el impuesto a los super ricos en Argentina,"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검색일: 2020.12.20).

12) América Economía(2020.12.23), "5,7 millones de chilenos han hecho segundo retiro desde su AFP,"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검색일: 2020.12.24).